

1~2인 가구 증가... 껌질없는 과일 잘 팔린다

오렌지, 가격 저렴 불구 '먹기 불편' 판매 부진 딸기, 2030 젊은세대 중심 '편의성' 중시 인기

3~4월 가장 많이 팔리는 오렌지가 가격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1~2인 가구가 늘면서 오렌지나 사과같이 껌질을 꺾어야 하는 등 '먹기 불편한' 과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0일 현재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10개 소매가는 9444원으로, 지난해 4월 평균 가격인 9886원보다 4.5% 저렴하다.

이는 2013년 4월 975원 이후 4월 가격으로는 가장 저렴한 수준이기도 하다.

오렌지 가격이 이처럼 싸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작년까지

5%였던 계절관세가 올해부터는 완전히 철폐돼 0%가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8월 5% 적용됐던 계절관세가 철폐되면서 일선 소매점 판매가도 싸졌다.

이마트에서 지난해 4월 300g 내외의 미국산 오렌지 특대는 개당 1200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에는 990원으로 가격이 17.5%나 하락했다.

하지만 오렌지 가격이 싸졌음에도 오히려 판매량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9일까지 오렌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감소했다.

가격이 싸진 데다 판매량까지 감소하면서 최근 수년간 3~4월 과일 매출 1위

자리를 고수했던 오렌지는 올해는 딸기에 밀려 매출 순위가 2위로 떨어졌다.

이마트는 오렌지 가격이 싸졌는데도 판매량이 감소한 이유가 갈수록 확산하는 '먹기 불편' 과일의 선호 현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면서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과일 소비에서도 '편의성'을 중시하는 현상이 확산해 딸기나 바나나처럼 껌을 씹지 않아도 손쉽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렌지는 손으로 까서 먹기가 힘들고 껌이 필요해 젊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도 다른 과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이마트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이마트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바나나나 사과를 제치고 과일

매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마트에서 바나나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반면, 사과 매출은 10.4% 감소했다.

실제로 이마트가 지난해 주요 과일 품목을 '칼(과도)이 필요 없는 과일'과 '칼이 필요한 과일'로 구분해 매출 신장률을 비교한 결과 칼 없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 딸기, 체리 같은 과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 수박, 배, 복숭아, 오렌지 등 칼이 필요한 과일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후학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과일뿐 아니라 반건조 생선, 소포장 채소 등 별도로 손질할 필요가 없는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신선식품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생활용품·수입소고기 등 최대 50% 할인해 드려요

롯데마트 창립 20주년 특별행사

롯데마트 광주·전남지역 9개 점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행사에 돌입한다.

롯데마트 광주·전남지역 9개 점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행사에 돌입한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미국산 척아이를(100g)과 부채살(100g)이 각 1400원(비회원이 2800원)이다.

그 외 후추산 외구 썰기, 설도, 앞다리살(각 100g)도 정상이 대비 50% 할인된 1900원에 선보인다.

11일 롯데마트 상무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창립 20주년에 맞아 지난 20년간 사랑을 받아온 상품들을 선정해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 다.

우선 아보카도(1개당) 990원, 자반고 등어(1손, 2마리) 2000원을 대표로 다양한 생활용품과 음료 등 총 25종의 인기 품목을 특별기획가로 판매한다.

또 18일까지는 '수입 소고기 페스티벌'을 열고 행사기간에 엘포인트(구 롯데멤버스카드) 회원이 롯데·신한·KB

국민·현대·NH농협 카드로 결제시 수입소고기 전 품목을 50% 할인한다.

최유성 롯데마트 상무점은 "롯데마트 창립 20주년 행사에 맞춰 25대 품목 특별가 및 수입소고기 절반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고객이 선호하는 품목 위주로 행사를 기획했기에 저렴한 가격에 인기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해외여행 항공권 6·11월 가장 싸다

6월 도쿄·방콕·마카오

11월 오사카·다낭·괌

해외여행 항공권 가격은 6월과 11월 출발편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지난 1년간 130만건의 항공권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해외여행 항공권은 6월과 11월 출발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항공권 가격 대비 6월 티켓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도쿄, 후쿠오카, 방콕, 타이베이, 마카오, 하노이, 호찌민, 푸켓 등이었다.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의 연평균 가격은 21만원대지만, 6월 항공권은 17만원대였다. 도쿄와 타이베이 역시 6월에 떠 나면 연평균 가격보다 각각 13%, 15%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방콕도 6월 출발 평균 가격이 40만원대로 연평균보다 5만원 싸다.

연중 11월 출발 항공권이 가장 저렴한 지역은 오사카, 다낭, 괌, 세부, 홍콩, 코타키나발루 등으로 조사됐다.

세부는 11월 항공권이 연평균 대비 19%, 괌은 18%, 오사카는 17% 각각 저렴했다.

김학중 티몬투어 항공여행사업 본부장은 "항공권은 전체 여행 경비의 최대 70%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시기별 항공권 가격 변동 추세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항공권 예약 서비스 1주년을 맞은 티몬투어는 최저가 항공권에 할인쿠폰까지 제공하는 '전세계 항공권 최저가 선언 기획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변액보험 약관 여전히 '알쏭달쏭'

변액보험의 '알쏭달쏭 약관'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상품 역시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험개발원의 '제15차 약관 이해도 평가'에 따르면 22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 약관은 전문가·소비자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2.3점을 받았다.

우수(80점대)·양호(70점대)·보통(60점대)·미흡(60점 미만) 등 4단계 분류로 보면 양호 등급이다. 직전 평가인 2016년의 11차 평가(69.2점)보다 개선됐다.

우수 등급은 미래에셋생명의 '변액건강중신보험Ⅱ 무배당 1704' 등 3개였다. 18개 상품은 양호·보통 등급이었다. AIA생명의 '무배당 우리가족 지켜주는 변액중신보험'이 유일하게 미흡 등급에 매겨졌다.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평균 75.1점으로 나타났다. 2016년 평균(63.9점)과 비교하면 10점 넘게 좋아졌다.

롯데손보, DB손보, 대케이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 8개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KB손보와 메리츠화재는 양호 등급에 머물렀다.

MG손보의 'MG다이렉트개인용자동차보험'과 AXA손보의 '다이렉트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2개는 미흡 등급에 매겨졌다. 이들 두 회사는 2016년 평가에서도 미흡 등급이었다. 전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평가 결과와 세부적 내용을 각 보험사에 제공해 약관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술족 겨냥 미니 와인 팔아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 1층 와인코너에 '홍술·홍술족'을 겨냥한 별도 매장을 구성하고 소용량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와인매장에서는 이달 특가로 일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국토부, 택배용 차량 부족 문제 해결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12일 확정해 고시한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자가용 불법 영업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2017년 762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택배용 화물차 허가대수를 제한해 온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부가 인정한 택

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택배용 차량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신규 택배차량 허가 시행 공고를 한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해 최종 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마트, 스페인산 흑돼지 '이베리코' 선보여

이마트는 11일 스페인산 흑돼지의 최상등급인 '이베리코 데 베요타' 5가지 부위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베리코'는 먹는 음식과 방목 기간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10개월간 축사에서 고급 사료를 먹여 키우는 '세보'와 축사에서 10개월간 키운 후 2개월 동안 방목해 기른 것이 '레세보'다. 순종 이베리코 흑돼지를 상수리나무 숲에 3개월 이상 방목하며 도토리를 먹여 키운 것은 최상등급인 '베요타'다.

이마트가 이번에 판매하는 베요타 5가지 부위는 구이용으로 적합한 립퍼거, 목심, 항정살, 프레사, 세크레토벨리 등이다.

립퍼거는 갈비뼈 사이의 살들을 발라낸 부위로 맛이 진한 게 특징이며, 프레



사는 목심 측면에서 떼어낸 부위다. 세크레토벨리는 삼겹살의 최상단 근육 부위만 따로 발라낸 것으로, 국내산 돈육에서는 상품화하기 힘든 희소 부위로 꼽힌다.

문주석 이마트 수입업 바이어는 "점차 고급화되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충족하기 위해 세계 4대 진미로 꼽히는 이베리코 데 베요타를 선보이게 됐다"며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 이마트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마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특허공법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난연소재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형디자인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061)726-0482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복합 (061)284-0485
방수 (061)683-0485
전남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